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지쳐 보였다. 두 분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근대화 근 연쇄점'이라고 써어 있는 이 근방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가게로 들어섰다. 어머니는 가게 여주인에게 많은 것을 물었지만 지금 기억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어머니는 크라운 산도 몇 짝을 샀고 거기서 꼭 한 봉지만을 빼내어 내게 주셨다. 그것은 감질날 정도로 조금씩 아껴먹었지만 이내 빈 봉지만 남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빈 봉지를 부스럭거리는 나를 본체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세 사람은 늦여름의 산마루 초입을 오르기 시작했다. 멀리 산 중턱에 푸른 기와를 엮은 커다란 집이 보였다.

어머니는 나를 강당이라고 불리는 곳에 두고는 초로의 영감 내외와 이야기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셨다. 문 밖에서는 거칠게 뛰노는 아이들의 왁자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당의 한쪽 벽은 아이들의 이름이 써어진 사물함이었고 그 반대쪽에는 처음에는 황금빛이었겠으나 이젠 시커멓게 퇴색되어 버린 트로피며 상패들이 놓여 있었다. 트로피 아래에는 유리문으로 닫힌 책장이 있었다. 책장으로 가서 공상과학소설 한 권을 빼들었다. 외계인이 지구에 침입하였는데 식인식물을 심어 인류를 멸망시키려 하는 내용이었다. 다 읽고 나서 하권으로 계속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유리문 안에는 하권이 없었다. 주위를 살피니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어디선가 또르르 목탁소리에 맞춰 아이들의 바쁜 땀박질 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이 책의 하권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 것 같았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곳이었으므로 학교에서 돌아오면 농장에 나가 잡초를 뽑거나 소

가 먹을 꼴을 베러 들로 나가야 했다. 비가 그친 여름날, 그리고 대부분의 가을날엔 버섯과 도토리를 채울 빈 자루를 쥐고 산에 올라야 했다. 그러면서 째깍이 어두운 강당 구석에 틀어박혀 책장 속에 있는 책들을 아금아금 읽었다. 책은 결코 많지 않았고 내가 그곳에서 생활한 몇 년 동안에 새 책이 채워지는 일도 없었다. 겨울이면 연탄이나 라면을 싣고 오는 사람들은 많았어도, 책을 사오는 사람은 불교전래 동화 한 질을 가져왔던 여신도들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없었다.

내가 다 자라서 그 작은 세상으로부터 뛰쳐나왔을 때, 내 또래의 사람들이 자라면서 읽은 세계문학전집 따위의 책들을 내가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사할 때마다 수많은 책들이 버려지거나 헐값으로 헌책방에 맡겨진다는 것을 알았다. 대부분의 책들은 사서 읽고 나면 책꽂이에 꽂히고 몇몇을 제외하고는 거의 처분될 때까지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이미 읽은 책들을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 사람들이 짐을 정리할 때까지 꼭꼭 쥘어두지 말고 좀더 일찍 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책을 구입할 형편이 모자란 이들에게 주어졌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런 책 출판은 어떨까?' 라는 주제에 맞춰 생각한 것은 거창하게 말하자면 출판계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책의 표지 뒷면은 보통 광고 카피와 본문의 인용, 그리고 바코드가 새겨져 있다. 바코드만 앞면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생략한 후에 수신처 선택란을 인쇄한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명과 주소들이 인쇄되어 있어 수신처를 어디로 할 것인지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책의 맨 마지막 장에는 구입한 사람의 간략한 인적 사항과 소감을

독서는 사회공헌 이다

고아원 소년원 등 소외된 이웃과 나뉘보는 책 책 뒷표지에 별도의 수신처란... 책의 기부 생활화

신성철 SK커뮤니케이션즈 네이트닷컴사업본부 과장



적을 수 있는 날장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책을 구입한 사람들은 읽고 난 후에 맨 뒷장에 자신의 메시지를 적고 수신처를 체크해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된다. 그 자체로 훌륭한 기부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으려면 출판계와 정보통신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는 '사회공헌'이라는 주제만으로도 어렵지 않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보는 따로 필요가 없다. 책의 맨 뒷장과 뒷표지, 그리고 세네카 정도만 활용을 하여도 쉽게 독자들의 눈에 띄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송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데, 이 정도 비용은 책값에 포함시켜 값을 조금 올려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독자들이 부담한 이 우송료는 이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에 회원번호와 기부한 책의 코드를 등록하여 연말에 기부행위에 따른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책 한 권에 만 원 안팎의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이쯤에서 우리는 이런 미래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법조인이 청년 시절에 법학서적의 틈바구니에서 틈틈히 읽었던 모음과 헤밍웨이를 소장한 고아원, 어느 예술가가 암울했던 시기에 읽었던 릴케와 까뮈를 소장한 소년원, 또는 대학교수가 유년 시절에 읽은 《먼나라 이웃나라》를 소장한 소년가장. 이런 책들은 미담거리로도 가치가 있겠지만 나중에 자리를 따로 마련하여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경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기부' 하면 기업이나 연예인, 그리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고 기부행위라는 것 자체가 이벤트성으로 인식되기 때

문일 것이다. 뭔가 대단한 물질 이익을 얻었을 때 행하는 것이라는 이런 인식은 연예인의 자선행위와도 관련이 있다. 대박을 터뜨리면 몇 억을 쾌적하거나 무슨 자선행사에 홍보대사라는 명목으로 이름을 올리는 정도이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남의 나라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브리짓 바르도가 고깝기는 할지언정, 그 지속적인 애정이야말로 진정한 참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생활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위해서라도 독서를 곧 사회공헌으로 연결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이유는 '본전 의식'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언젠가 홍세화 선생이 한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한다. 오래 전의 일이고 메모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할 자신은 없으나 거칠게 옮겨 보자면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성숙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상교육입니다.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 일류대에 들어가 사회의 주요 공직을 맡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교육은 교육 그 자체가 아닌 투자였기 때문에 결코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들이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가 충분히 무상교육을 하고도 남을 규모라는 것입니다."

책을 나누는 행위는 무상교육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나누는 행위를 통해 연대감을 가진 아이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와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말에 뭐 하셨어요?"

"시내에 나가서 책 몇 권 샀어요."

"아이쿠, 좋은 일 하셨네요."

"에이, 필요..." 

